분임토의 연구종합보고서

선진 문화산업 비교를 통한 발전방안

제16기 중견간부양성과정 제2분임

목 차

Ⅰ. 연수개요 / 1

Ⅱ. 연수국가별 일반현황 / 3

1. 미국 3
2. 캐나다 4

Ⅲ. 방문지별 연수내용 / 5

<미 국> 5
1. 뉴욕 5
2. 워싱턴 8
<캐나다> 11
1. 토론토 11
2. 몬트리올 13

Ⅳ. 기관방문 / 16

1. 뉴욕시 도시공원관리과 16
2. 나이아가라 관광청 18
3. 퀘백 관광청 20

Ⅴ. 정책제언 / 23

Ⅰ 연수개요

❑ 연수기간 : 2019. 8. 26 ~ 9. 6(10박 12일간)

❑ 연수국가 : 미국, 캐나다

○ 미　국 : 뉴욕, 워싱턴, 보스톤

○ 캐나다 : 나이아가라, 토론토, 오타와, 퀘백

❑ 연수목적

○ 미국 동부 및 캐나다 대도시의 문화분야의 시설 및 운영실태 견학으로 우수사례를 수집하여 문화산업 발전방안 모색

○ 지역의 명소와 역사적 건물을 보존하여 문화를 관광자원화한 현황을 파악하여 문화정책 전반에 대한 견문 확대로 전문성 제고 및 개인 역량 강화

❑ 연수인원 : 11명(교육생 10, 인솔 1)

소속	직급	성명	비고	소속	직급	성명	비고
충청북도	시설5급	김준수	인솔	청주시	행정6급	이차자	
충청북도	전산6급	박순화	간사	옥천군	농업6급	고재환	분임장
충청북도	공업6급	연기호		증평군	행정6급	신은성	
청주시	행정6급	조봉숙		진천군	행정6급	김옥경	
청주시	세무6급	이명자		괴산군	세무6급	이삼용	
청주시	행정6급	정운옥					

❑ 연수일정

일 자	지 역	일 정
제1일 8/26 (월)	인 천 뉴 욕	□ 인천 출발 / 뉴욕국제공항 도착 □ 뉴욕문화체험 - 원월드전망대, 911메모리얼파크
제2일 8/27 (화)	뉴 욕	**■ 공식방문 : 뉴욕시 도심공원관리과** - 센트럴파크 탐방
제3일 8/28 (수)	워싱턴	□ 워싱턴 문화탐방 - 국립미술관, 백악관, 국회의사당
제4일 8/29 (목)	워싱턴	□ 워싱턴 문화탐방 - 한국전참전용사 기념비, 링컨기념관, 워싱턴 기념탑
제5일 8/30 (금)	뉴 욕	□ 맨해튼 문화탐방 - 타임스퀘어, 브로드웨이, 록펠러센터
제6일 8/31 (토)	뉴 욕	□ 뉴욕문화체험 - 월스트리트, 자유의 여신상
제7일 9/1 (일)	보스톤	□ 보스톤 문화탐방 - 퀸시마켓, 하버드대학, 보스턴커먼공원
제8일 9/2 (월)	나이아가라	**■ 공식방문 : 나이아가라 관광청** □ 나이아가라 문화탐방 - 바람의 동굴, IMAX3D 관람
제9일 9/3 (화)	나이아가라	□ 나이아가라 문화탐방 - 나이아가라 유람선, 스카이론전망대, 꽃시계
제10일 9/4 (수)	토론토 퀘 백	□ 토론토 문화탐방 : CN타워전망대, 천섬 **■ 공식방문 : 퀘백 관광청** □ 퀘백 문화탐방 : 승리의 교회, 왕의산책로, 쁘띠샹플랭거리 샤토프론트악호텔
제11일 9/5 (월)	뉴 욕	□ 뉴욕공항 이동 □ 뉴욕공항 출발
제12일 9/6 (금)	인 천	□ 인천공항 도착 -> 충청북도자치연수원 도착

Ⅱ. 연수국가별 일반현황

1 미국(United States of America)

○ 위 치 : 북아메리카 대륙 중부

○ 수 도 : 워싱턴(Washington DC)

○ 언 어 : 영어

○ 면 적 : 9,833,517㎢ 세계3위(CIA 기준)

○ 인 구 : 약 326,766,748명 세계3위(2018)

○ 인구구성 : 백인(80%), 흑인(12.8%), 아시아계(7.2%)

○ 종 교 : 개신교(52%), 카톨릭(24%), 몰몬(1.7%), 유태교(1.7%) 등

○ 특 징

- 세계에서 러시아, 캐나다에 이어 세번째로 면적이 넓은 나라이며, 남쪽으로 멕시코와 국경을 마주하고, 북쪽으로 캐나다와 접해 있다. 서쪽으로 태평양, 동쪽으로 대서양에 접해 있고 남동쪽으로는 카리브해가 있다. 50개주와 1개 수도구(D.C) 외에 해외속령으로 푸에르토리코·사모아 제도·웨이크 섬·괌섬이 있다.
- 세계 최강국으로 꼽히는 미국은 다양한 민족이 이주하여 정착한 다민족국가이다. 민주주의적 혼합 경제로 부유한 경제성장 달성뒤에는 풍부한 인적, 물적 자원의 존재와 기술혁신이 뒷받침되고 있다.
- 20세기 들어 두번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미국의 산업은 더욱 발전하게 되었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최강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 주요방문지역 : 뉴욕, 워싱턴, 보스톤

2 캐나다 [Canada]

○ 위 치 : 북아메리카 대륙 북부
○ 수 도 : 오타와
○ 언 어 : 프랑스어, 영어
○ 면 적 : 9,984,670㎢ 세계2위
○ 인 구 : 약 35,695,000명 세계38위(2018)
○ 종 족 : 영국계(28%), 프랑스계(23%), 기타 유럽계(15%), 아메리카 원주민(2%), 아시아·아프리카·아랍계(6%), 혼혈(26%)
○ 종 교 : 카톨릭(43.6%), 기독교(33.5%), 기타(5.9%), 무교(17%)
○ 특 징
- 러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넓은 나라로서 북아메리카 대륙 면적의 1/3을 차지하는 거대한 면적의 나라이지만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곳은 한정되어 있다. 서쪽으로 미국 알래스카주, 남쪽으로 미국 12개주에 접하고, 서쪽으로 북태평양, 북쪽으로 북극해, 동쪽으로 대서양·데이비스해협·배핀만에접한다. 행정구역은 10개주, 3개 준주로 이루어져 있다.
- 캐나다는 1994년 이래로 UN과 영국의 경제 분석 기관인 이코노미스트인텔리전스 유닛(EIU)에서 지정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10개국 중 하나로 자리매김 하였음. UN에서 실시한 조사에서 캐나다는 좋은 교육환경, 모든 국민이 보장받는 의료보험 제도로 인한 높은 평균 수명 그리고 낮은 범죄율과 폭력 발생률에서 특히 높은 점수를 받았음. 또한 캐나다의 대도시인 밴쿠버, 토론토 그리고 몬트리올은 깨끗하고 안전한 주변 환경, 다양한 문화 활동과 매력적인 라이프 스타일로 인해 살기 편하고, 일하기 좋은 세계적 수준의 도시로 널리 인정되어왔음.

○ 주요방문지역 : 나이아가라, 토론토, 퀘백

Ⅲ. 방문지별 연수내용

<미 국>

1. 뉴욕(New York City, NY)

□ 특징

○ 미국내 인구규모 순으로 1위, 미국은 물론 전 세계의 경제수도

○ 5개의 보로(Borough)로 구성되어있으며, 각 보로별로 카운티를 형성

○ 부동산 가격 및 주거 환경으로 인하여 인근의 뉴저지주에 거주하면서 뉴욕시로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들이 많은 편

○ 명실상부한 세계최고의 경제・문화・상업의 중심지

□ 경제·문화·관광

○ 맨하탄 지역 부동산 시장 평균 가격 : 가구당 $916,000 (2010-2014)
- 미국 전역에서 샌프란시스코와 1, 2위를 다투는 지역

○ 주요산업 : 기술산업, 금융업, 공연산업, 관광산업 등

○ 세계 금융시장의 중심지인 월가(Wall Street)가 위치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에 세계 최대 규모의 뉴욕증권거래소(New York Stock Exchange, NYSE)가 위치하고 있음

○ 관광명소 타임스퀘어(Times Square)와 브로드웨이 뮤지컬가

□ 주요방문지 및 연수내용

① 911메모리얼 파크



- 9.11테러 이후 전 세계적으로 많은 애도의 물결이 이어졌고, 테러의 현장이던 세계무역센터는 넋을 기리기 위한 국립메모리얼뮤지엄이란는 이름의 추모 공원으로 만들어졌다.

- 이곳에는 9.11테러 당시 유일하게 살아남은 나무가 그 상징성을 가지며 보존되어 있는데 그 나무의 이름은 The survivor tree로, 이 생존나무가 애도 공간에 남아 현장을 기억하며 테러를 막지 못한 살아남은 자들의 미안함을 대신하고 있다.

② 원월드 트레이드센터



- 9.11테러 이후 재건한 건물로 102층 전망대까지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도중에 맨해튼의 발전상을 그래픽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
- 전망대는 사방을 유리로 만들어 맨해튼의 전경을 여러 각도에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고, 멀리 자유의 여신상까지도 조망이 가능하다.

③ 자유의 여신상



- 자유의 여신상은 1876년 미국 독립 1백주년을 기념하여 프랑스에서 기증하였다.
- 뉴욕 허드슨 강의 리버티 섬 12에이커의 땅 위에 위치. 조각가는 프레데리크 오귀스트 바르톨디(Frederic-Auguste Barthold).

- 자유의 여신상 무게는 225t, 대좌(받침대) 높이가 약 47.5m, 동상 자체의발끝에서 횃불까지의 높이가 46m.
- 기단에 새겨진 “자유롭게 숨쉬길 갈망하는 너의 지치고 가난한 무리들을 내게 보내다오”라는 구절처럼 자유의 여신상은 새로운 꿈을 안고 고향을 떠난 수많은 이민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약속하며 미국으로 인도~미국은 전 세계에서 모여든 이민자들의 나라다

④ 타임스퀘어




- 뉴욕에서 가장 번화하고 화려한 거리다. 브로드웨이, 7번가, 42번가가 교차하는 곳에 형성되어 있으며 1903년 뉴욕타임스가 이곳으로 이전해 오면서 이름이 타임스퀘어로 바뀌었다.
- 거대한 전광판이 송출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삼성과 LG도 눈에 띈다. 화려한 네온사인의 야경으로 전 세계 관광객을 불러 모으는 이곳은 스타일과 패션 등 한껏 멋을 부리며 타임스퀘어 거리를 걷고 싶게 만드는 매력을 갖추고 있다.

⑤ 월스트리트





- 세계금융의 중심가로, 입구에 위치해 있는 황소동상은 언제부터인가 생식기를 만지면 부자가 된다는 속설이 있어 수많은 관광

객들이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는 곳이다.
- 월스트리트의 상징이 된 황소동상 상징물처럼 도시의 역사, 유래 등과 관련된 조형물이 세계적 관광 상품이 되고 있다.

⑥ 센트럴파크




- 뉴욕 맨해튼 중심부에 위치한 도심 속 공원으로,뉴욕의 상징이자 미국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공원이다.
- 센트럴파크는 도보로 4시간 가량이 소요되는 3.14㎢의큰 규모를 자랑한다. 뉴욕 시민들이 일광욕을 즐기는 이 공원은 저수지, 호수, 박물관, 분수, 동물원, 야외 원형극장 등을 갖추고 있으며 연간 4천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한다.

2. 워싱턴 D.C

□ 특징

○ 미국의 수도이며 미국의 어느 50개 주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된 행정 구역이다.

○ 국제적으로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세계 도시이며, 수도로서의 기능을 완수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계획도시이다.

○ 워싱턴 D.C.에서는 국회를 존중하고 그 권위에 경의를 표하는 목적으로 랜드마크이자 상징중 하나인 워싱턴 기념탑이 있는데, 모든 건물은 이보다 높고도 은 건물은 지을 수 없도록 법으로 제한법(Heights of Buildings Act)규제를 받고 있다.

□ 경제·사회

○ 시가지는 포토맥강에 접하여 대서양과 수상 유통이 편리하나 주요 교통은 철도와 비행기를 이용한다.

❍ 전형적인 정치도시로서, 취업인구의 태반은 정부기관 또는 그 관련 분야에서 일하고 있으며, 3차산업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특징이다. 이 때문에 인종차별이 없는 연방정부 기관에서 일하는 흑인이 증가하여, 시민의 과반수는 흑인이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 일반 자치제와는 달리, 연방직할이기 때문에 시장(市長)이 없었고, 시민은 종래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에서도 선거권이 없었으나, 1962년부터 대통령 선거권을 얻게 되었으며(실제로 1964년부터 행사), 또한 1967년부터 정부가 임명하는 시장을 갖게 되었다.

❍ 제2차 세계대전 후 연방정부의 역할이 늘어남에 따라 워싱턴도 확대되어, 20세기초에는 30만명정도였던 것이 1975년에는 72만이 되었다.

□ 주요방문지 및 연수내용

①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





- 한국전 참전 용사 기념비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국군을 기리기 위하여 1995년(한국전쟁 전정 42주년)세운 현충시설로 미국에서 6.25전쟁은 한때 '잊혀진 전쟁'으로 불리기도 했지만, 희생자들을 기리고 전쟁의 아픔을 잊지 않으려는 노력이 꾸준히 진행.
- 워싱턴에 있는 한국전 참전 기념비 시설 중, 회상의 연못 부근에 있는 동판에 적힌 명문 (銘文)에 "자유는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 알지도 못하는 나라,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들을 지켜야 한다는 국가의 부름에 응한 미국의 아들과 딸들에게 미국은 경의를 표한다"라는 말이 영어로 씌어다.

② 링컨 기념관




- 미국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으로 건축가 헨리 베이컨이 1922년에 건축. 건물 안 링컨의 동상을 중심으로 좌상의왼쪽 면에는 링컨의 유명한 게티스버그 연설문인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 중 일부가, 오른쪽 면에는 링컨의 제2회 취임 연설문이 조각되어 있다
- 1963년 마틴 루터 킹은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를 이곳에서 처음 연설. 1¢ 동전과 $5지폐 앞면에는 링컨 대통령이, 뒷면에는 링컨 기념관이 새겨져 있다

③ 워싱턴 국립미술관




- 중세부터 21세기를 아우르는 회화, 조각, 그래픽 예술은 세계 최고의 컬렉션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그리스 신전을 연상케 하는 서관과 신고전주의 양식의 동관 그리고 조각공원이 있다.
- 전시장에는 엘 그래코, 브루겔, 퍼신, 페르메이르, 안 반 에이크, 루벤스, 길버트 스튜어트 등 거장들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 미국에서 유일하게 볼 수 있는 다빈치 작품 지네브라 데 벤치하나만으로도 관람객들을 설레게 한다.

< 캐나다 >

1. 토론토

□ 특징

○ 온타리오 주의 주도이며, 캐나다에서 인구가 가장 많음.

○ 금융 및 상업 중심지이며, 미국과의 경계를 이루는 온타리오 호의 북쪽 끝에 접해 있는 입지조건 덕분에 세인트로렌스 수로를 통해 대서양과 연결되고, 오대호를 통해 미국의 여러 주요 공업 중심지와 연결되어 주요 국제교역 중심지

○ 온타리오호로 인해 다소 완화되기는 하지만 기온이 여름에는32℃ 이상으로 올라가고, 겨울에는 -18℃ 이하로 떨어짐.

□ 경제.문화.관광

○ 국제적 기업, 금융도시, 캐나다의 금융수도로서 토론토시 베이스트릿에는 은행과 금융관련 회사들이 밀집. 토론토 주식거래소는 세계 제7대 주식시장의 하나. 캐나다 5대 은행들이 토론토에 본부를 둠. 대중매체, 인쇄출판, 통신, 정보통신, 영화산업이 발달

○ 토론토는 연간 4백만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도시로, 가장 유명한 관광지는 CN타워로서 높이는 553미터. 로얄 온타리오 박물관은 세계 문화와 자연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박물관. 토론토 주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동물원의 하나로 460종 5000 마리 이상의 동물이 있음

○ 온타리오 아트 갤러리는 캐나다, 유럽, 아프리카 그리고 현대 미술품을 전시하고 있음. 이밖에 가디너 도자기 박물관, 온타리오사이언스 센터, 바타슈 박물관등이 있다

□ 주요방문지 및 연수내용

① 나이아가라 폭포





-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자연관광지중 하나로 캐나다와 미국북동부의 국경에 위치. 캐나다 쪽의 폭포는 높이 54m, 폭 610m의 규모로 두 폭포의 사이에는 고트섬(Goat Island)이 있다
- 나이아가라폭포 발생의 기원은 빙하기 이후 나이아가라 폭포 절벽의 하류 11km 지점에 있었던 폭포가 연간 약 30㎝씩 침식해 현재의 모습으로 위용을 갖추게 되었고, 나이아가라는 연간 세계각지에서 1,2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자연의 위대함과 웅장함을 감상하려 방문하는 국제적인 명소
- 폭포의 위용을 드러내는데 유람선(혼블라워호) 이외에도 스카이론 타워(Skylon Tower) 같은 전망대에 오르거나, 라이드 나이아가라(RideNiagara)를 타고 직접 폭포 속을 헤쳐 나가거나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나이아가라를 느낄 수 있다

② CN타워 전망대





- 1976년에 캐나다 토론토에 세워진 높이 553.33m의 탑이다.

• CN 타워는 본래 캐나다 국철(Canadian National Railway) 소유였기 때문에 'CN'이 '캐나다 국영'(Canadian National)을 뜻했으나 국철 회사는 1995년 민영화에 앞서 CN 타워를 캐나다 연방의 부동산 개발을 책임지는 캐나다 토지 공사(Canada Lands Company, CLC)에 매각하였다. 토론토 주민들이 'CN 타워'라는 이름을 유지하기를 원함에 따라 현재 CN은 공식적으로 '통신망'(Communication Networks) 또는 '캐나다의'(Canada's National)를 의미한다.

③ 천섬





• 천섬은 캐나다와 미국 사이, 킹스턴의 세인트로렌스 강을 따라 염주처럼 늘어진 1,900여개의 섬들을 뜻하는 말. 천섬은 캐나다와 미국령으로각각 나뉘어 분포돼 있으며 각 섬에 게양된 국기를 보고 각 나라의 영을 짐작할 수 있다

• 1870년경 부유한 상류층의 사람들이 자신만의 개성을 담은 별장들을 빼곡히 지은 후 일반인들에게 오픈하면서 지금의 관광 명소로 유명. 총 1,864개의 섬으로 이루어짐. 각 섬에는 2그루 이상의 나무가 서식을 해야만 섬으로 인정하고,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특이한 법률이 존재.

2. 몬트리올

□ 특징

○ 퀘벡주에 위치한, 캐나다에서 토론토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도시.

○ 프랑스어를 쓰는 도시 중에서는 파리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도시로서 몬트리올이 북미의 파리라고 불리움. 영어 사용자도 소수이지만 꽤 많으며 두 가지 언어를 모두 사용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고 있음

○ 퀘벡 주의 주도인 퀘벡 시에서 남서쪽으로 250km 떨어져 있으며, 수도인 오타와의 동쪽 200km에 자리 잡고 있음.

○ 프랑스 식민시대의 영향으로 프랑스계가 주축이며 한때 분리 독립 투표가 시행되었으나 가까스로 부결됨. 프랑스풍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독립성이 강한 지역임

□ 경제.문화.관광

○ 1970년대까지 캐나다 최대 경제중심지였으나 토론토시에 패권을 물린 후 회복하지 못하다 1990년대 들어 차츰 회복하기 시작함.

○ 상업, 산업, 기술, 문화, 금융, 국제전시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으며, 항공, 전자부품,의약, 페인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통신, 방직 및 의류제조, 담배, 교통이 주요산업임.

○ 몬트리올 항구는 가장 큰 내륙항으로 매년 2600만톤의 화물을 처리.

○ 캐나다 우주항공연구소가 시 남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제연합소속인 국제항공기구(ICAO), 국제항공수송협회 등이 있음.

□ 주요방문지 및 연수내용

① 국회의사당





- 국회의사당은 오타와 강이 내려다 보이는 석회암 절벽Parliament Hill) 위에 네오고딕 양식의 건물로 지어졌다.
- 국회의사당의 정문을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꺼지지 않는 불꽃(Centennial Flame)입니다. 캐나다 연방정부의 건국 100주년 기념으로 마련된 불꽃으로, 천연가스로 피운 불꽃이 365일동안 꺼지지 않고 켜져 있고. 불꽃 주변으로는 물이 흐른다.

② 퀘백 광장, 시가지






- 퀘벡시티는 캐나다 속의 작은 프랑스라 불리우는 곳으로 역사가 깊으며 볼거리가 풍부한 도시이다. 특히 구 시가지(올드퀘벡)는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 보존 지구로 지정될 만큼 다양한 문화유산을 보유한 살아 있는 박물관이다.
- 퀘벡 시티는 성벽으로 둘러싸인 구 시가지 외에 바깥쪽으로 신 시가지가 펼쳐져 두 가지 뚜렷한 색깔을 가진 곳이기도 하다.
- 퀘백 다름 광장은 관광의 중심이 되는 곳으로 언제나 관광객들로 붐빈다. 중세시대 궁전같이 생긴 샤토 프롱트낙 호텔은 1893년에 세워져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
- 퀘벡시티의 심장이라 불리는 프티샹플랭 거리는 가장 오래된 번화가로, 늦은 밤까지도 사람들로 북적여 언제나 활기가 넘친다. 거리를 따라 개성 있는 간판을 내걸은 노천카페와 레스토랑, 상점들, 독특한 디자인의 생활 공예품과 예술가들의 작품들이 즐비한 곳이다.

Ⅳ. 기관방문

1. 뉴욕시청 방문

방문일자	2019. 8.27(화) 09:00 ~ 11:30
면담부서	도심공원관리과
주 소	24 W 61st St, New York, NY 10023 미국
연 락 처	(212)830-7700
기관현황	뉴욕시 정부는 325,000명의 직원이 있으며, 이 규모는 미국 도시 중에서는 최대 규모이며, 주와 비교해도 캘리포니아 주, 텍사스 주, 뉴욕 주보다도 크다. 이 정부는 미국의 대부분의 다른 도시보다 중앙 집권적인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정부는 공립 학교, 교정 시설, 도서관, 공공 안전, 오락 시설, 위생, 급수, 그리고 복지 등의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뉴욕은 1898년에 다섯 개의 구가 합병하여 현재의 형태가 되어 각 군 정부는 뉴욕시의 중앙 집권 정부에 통합되었다

□ 질의응답

① 센트럴파크 조성 기간과 조성에 들어간 예산은 얼마인가?

⇨ 1860년대 산업화가 도시화에 지든 뉴욕시민의 마음의 고향을 찾아주고자 약 100만평의 부지에 조성되었다. 1860년전에는 굉장히 마약, 강도 우범지역이었는데, 1조의 기금을 조성하였는데 이중 75%는 기부금, 부족문 25%는 뉴욕시에서 지원을 받았음

20년의 조성기간 끝에 현재 센트럴파크에서는 1400종 이상의 식물이 발견되는 일개 도시생태공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곳은 모두 암석이었고 나무와 잔디는 모두 인공적으로 조성한 것임

1860년대에 개장되어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이 공원이 미국 공공 조경 발달의 효시가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체 면적의 1/5가까이는 유수지, 연못, 수로, 호수 등으로 녹음과 함께 수경이 연출되는 추상적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음

이렇게 조성된 센트럴파크로 인하여 주변 아파트가 상승세를 타고 아파트 한 채가 2300억원에 팔렸음

면적 3.4km^2(104만평)으로 여의도의 7배, 이 공원이 맨하튼의 1/3을 차지하고 있음

② 센트럴파크 관리센터 연간 운영비는 ?

⇨ 연간운영비는 1조원으로 75% 기부를 받는데 멤버쉽으로 사기업들이 도움을 주고 있고, 나머지 25%는 뉴욕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음

③ 센트럴파크내에 놀이공원, 동물원이 있는데 수익사업이 있는지?

⇨ 돈을 받구 개인에게 임대해주는 것으로 개인이 놀이공원과 동물원을 임대해 운영하고 있는데 이 놀이공원은 트럼프대통령 소유이며, 트럼프대통령이 트럼프건물을 세우면서 이곳이 아이스스케이트장이었는데 아무도 사용을 하지 않아 활성화가 되지 않다가 100억정도 투자하여 놀이공원과 동물원으로 조성하여 현재처럼 활성화를 시켰음.

④ 센트럴파크 방문 관광객은 얼마나 되고 현지 주민들과 비율은 어느정도 되는지?

⇨ 1년간 420만명의 관광객이 찾아오고
75%는 현지 주민들이고 25%가 관광객으로 보면 됨

2. 나이아가라 관광청 방문

방문일자	2019. 9. 2(월) 10:00 ~
면담부서	정보관리과
주 소	5400 Robinson St,Niagara Falls, ON L2G 7TB
연 락 처	(905)356-6061
기관현황	나이아가라 관광청은 토론토 피어슨, 버팔로, 뉴욕주 해밀톤 국제공항 등 3개 공항이 있어 교통연계가 좋아 접근성이 좋은 곳이며, 나이아가라 폭포를 구심점으로 다야한 상품개발과 홍보가 주요업무 임

□ 질의응답

①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기 위해 찾아오는 연간 관광객 수와 이를 통해 얻게 되는 관광수입은 얼마나 되는가 ?

⇨ 이 곳 나이아가라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은 대략 8만5천명인데 이곳을 찾는 관광객은 약 3천만명 정도로 파악되며, 뉴욕을 찾는 관광객이 약 5천만명임을 감안하면, 이곳을 찾는 관광객수는 실로 어마어마하다고 생각됨.

관광수입은 주변의 호텔과 숙박 및 놀이시설(유람선, 헬기등), 폭포 입장료, 교통세, 그리고 카지노 수입으로 구성되는데 호텔의 경우 일부 수입이 연방정부로 가기 때문에 관광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기는 어려움

② 이 곳 거주민 중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현재도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으나, 비수기 때 관광객 유치를 위해 특별히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있는가 ?

⇨ 나이아가라 지역 거주자의 85%가 주변 호텔, 카지노, 매표 등에서 종사하고 있음

겨울철에 찾아오는 관광객을 위해, 폭포를 이용한 수력발전으로 남은 전력을 활용해 밤에 야간조명을 비추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95%를 생산하고 있는 아이스 와인을 상품화해 1월에 아이스와인 축제, 마술쇼와 와인쇼 등을 열고 있음

③ 불꽃놀이 1년 소요예산과 매일 불꽃놀이를 하는지? 정부지원은?

⇨ 불꽃놀이는 매일 5분에 1억원이 소요되며, 소요예산은 나이아가라 호텔에서 세금을 걷어서 운영하고 있으며, 호텔별 세금부과는 룸당 2불로 50억정도 걷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은 줄어줄고 있어, 지자체 자체적으로 민간협력으로 극복하고 있음

④ 투자유치를 위해 기업이나 투자자에게 세제혜액을 주는지?

⇨ 민간 투자자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어지지 않고 오히려 시설투자에 다른 재산증식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세금부담을 더하고 있음

⑤ '19년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가장 기억에 남는 이벤트가 있는가 ?

⇨ 12개 이상 호텔 허가후 신축 계획중에 있고 지금보다 발전된 모습을 볼수 있을 것이나 지나가는 관광지가 아닌 1주일 이상 체류할 수 있는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노력중임 특히 전세계의 신문, 방송관련자들을 초청하여 1주일간 매일 다른 이벤트를 체험시킴으로 홍보에 힘쓰고 있으며 특히 SMS홍보에 주력하고 있음 ⇨ 세계적인 골프 장타 우승자를 초대하여 캐나다에서 미국쪽으로 볼을 넘기는 이벤트가 유튜브 등 홍보가 잘되어 기억에 남는다.

⑥ 10년 후 나이아가라 모습을 어떻게 상상하는가?
우리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 지금 폭포주변만 활성화되어 있고 조금만 벗어나면 빈곤이 많다. 이 빈곳을 관광자원으로 다 채울 것이다. 또한 토론토가 인구밀도가 높은편이다. 이곳이 더욱 활성화되어 인구유입으로 활기있는 도시가 될 것임 ⇨ 한국에 귀국해서 관광종사자들에게 홍보를 부탁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팀구성이 되면 무료로 체험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혜택을 줄 수 있으며 한국의 관광엑스포 있을 경우 초대 부탁드리며 상호간 교류가 활성화되면 좋겠음

3. 퀘백 관광청 방문

방문일자	2019. 9.4(수)
면담부서	관광안내 민원부서
주 소	12. rue Ste-Anne, Quebec, Canada
연 락 처	(514)873-2015
기관현황	캐나다 퀘벡주의 주도이다. 퀘벡 주 카피탈나시오날 행정 지역의 중심 도시로, 퀘벡 주의회와 같은 주요 기관이 자리잡고 있다. 퀘벡 구도심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은 미국과 캐나다를 통틀어 도시에 남아있는 유일한 성벽으로 1985년에는 구도심 지역이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캐나다에서 네 번째로 가장 경제가 발전된 도시이자 퀘벡 주에서 가장 실업률이 낮은 도시이기도 하다. 성장 분야는 생명공학, 제조업, 관광업, 생명과학, 건강 및 영양 관련업, 보험 및 응용 기술 등이 있다

□ 질의응답

① 퀘백주의 인구와 퀘벡시의 인구는 얼마나 되며 주 사용언어와 인구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

⇨ 퀘백주 840만명 인구, 퀘백시에는 150만명정도 인구로 구성되어 있다. 퀘백주의 주 사용언어는 프랑스어이고, 영국, 미국, 프랑스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외국 관광객으로 구성됨

② 퀘백시만의 관광트랜드가 있는지?

⇨ 몬트리올 퀘백시에서 몽골리언시, 고래, 자연관련된 MTB 여러가지 퀘백시를 통해서 민간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관광지내에 만들었고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관광가이드를 하고 있음

③ 관광청의 성격이 민간인지 합작인지 ?

⇨ 관광청은 주정부 소속이고 시별로 자체적으로 있었다가 40년 전부터 케백주에서 직접 관광청을 운영하고 있음
자치제별로 하면 정보가 서로 달라서 맞추기 어려워 주정부 소속으로 통일하여 운영하고 있음

④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 정부에서 운영하는 건 세금가지고 운영하는데 세금을 걷으면 퀘백쪽에만 투자를 하게 돼 혜택을 보니까 그것이 제일 고민인 부분이다. 외부쪽에도 투자를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워 주민들간 갈등이 있다. 관광객이 집중적으로 퀘백에만 오기 때문에 살던사람들이 쫓겨나고 있는 상황 마켓이 없어지고 있다. 관광객 위주로 상점이 구성되기 때문에 이발소 현지사람들이 살기에 어려움

Ⅴ. 정책제언

1. 직지의 고향 흥덕사 재건

○ 일반인들한테 직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직지심체요절”이라는 불경을 알려줄 뿐, 그 어떤 숨결도 현장의 감흥도 전달해주기가 어렵다. 내가 처음 직지를 알고 현장에 가 봤을때도 고인쇄박물관만 있을 뿐 그 시대의 느낌과 감동이 박물관 정도로는 잘 전달되지 않았다.

○ 우리가 모차르트의 생가를 방문하는 이유는 느끼고 싶어서다. 충북의 자랑스런 문화유산 직지가 단순 나열식의 박물관 형태보다는, 그 현장을 느낄 수 있도록 직지를 만든 흥덕사를 재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u>모자르트 생가 : 1756.1.27. 태어나 17세이던 1773년까지 살았다. 모차르트했던 침대, 피아노, 바이올린, 자필악보, 서신들이 있고, 2층에는 유명한 오페라 <마술피리>를 초연할 당시 사용했던과 같은 소품들이 전시되어 있다.</u>**





출처 : https://windfactory.tistory.com/50, 디음카페 : 배낭길잡이

2. 선진국 이민정책에 착안한 대한민국 속에 각 국의 특화된 "문화&이민체험단지" 조성 : 독일마을

○ 미국, 캐나다의 다양한 이민정책을 통해 당면한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국가적 위기 대응차원에서 우리나라 농촌지역에 가장 바른 인구소멸이 예상됨

○ 소멸예상 지역을 우선 선정하여 대한민국 속의 각 국의 문화 및 이민체험단지(일명 대한민국 속의 태국, 대한민국 속의 터키 등)를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 및 우리나라에 대한 문화적 이질감을 줄이고 다가올 우리나라의 이민정책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 **독일마을 : 경남 남해군에서 이국 문화와 전통문화예술촌을 연계한 특색있는 관광지 개발**





<경남 남해 독일마을 전경>

<독일마을>

1960년대 어려운 시기에 조국 근대화와 경제발전에 헌신한 독일 거주 교포들의 정착생활 지원과 조국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고 독일의 이국 문화와 전통문화예술촌을 연계한 특색 있는 관광지 개발을 위하여 2001년부터 남해군에서 30여억원을 들여 70여동을 지을 수 있는 택지를 분양하였다. 건축은 교포들이 직접 독일의 재료를 수입하여 전통 독일식 주택을 신축하고 있는데 지금은 15동 정도가 완공되어 교포들이 생활하고 있으며, 독일에 가 있는 동안은 관광객을 위한 민박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출처 : Daum 백과사전

3. 우리나라 "4계절을 관광상품화" 하라

○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역사와 문화를 공략하라, 어떤 도시를 알리기 위해서는 그곳의 문화를 보여주는 것이 우선이다.

○ 음악과 예술문화를 곁들인 독특한 홍보를 통해 관심을 끌여들여야 한다. 또한 우리의 뚜렷한 4계절의 특징을 관광매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

⇒ **4계절 관광상품화 홍보 : 지자체간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1. 그 계절의 놀이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
2. 그 계절의 먹거리나 음식을 즐길 수 있다.
3. 계절이 뚜렷해서 농사짓기에 좋다.
4. 계절따라 풍광이 아름답게 바뀐다.
5. 계절마다 아름다운 꽃들을 볼수있다

	
봄 : 봄꽃을 테마로	여름 : 계곡과 바다를 테마로
	
가을 : 단풍을 테마로(가을산으로 구성)	겨울 : 눈을 테마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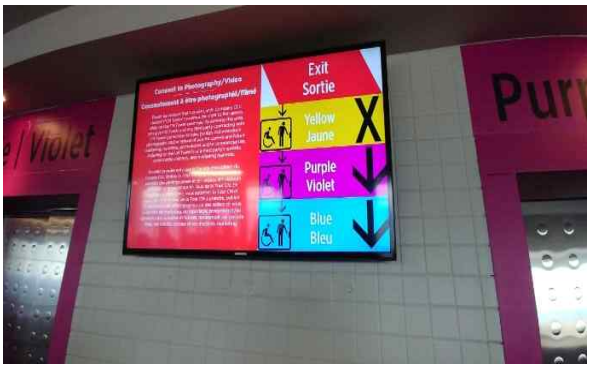
출처 : Daum 질문 Tip

4. 도시에 색감을 입히자

○ 미국과 캐나다에 비교하여 교통 접근성, 관광안내 인프라, 화장실등 문화적 편의시설은 잘 갖추어져 있으나,

○ 도시를 더욱 아름답게 표현 할 수 있는 색감을 입히는 디자인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홍보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관광자원의 실사 이미지이지만, 미국.캐나다의 경우 주변과 어우러진 화려한 색감으로 도시의 깨끗한 이미지를 극대화하고 있다.

⇒ 주변과 어울러진 그곳만의 색감을 입힘으로서 관광지 속에 또다른 관광지를 탄생 시킬수 있을 것이다.

<table>
<tr><td></td><td>
</td></tr>
<tr><td>뉴욕 도시 벽면</td><td>우체통</td></tr>
<tr><td colspan="2">

</td></tr>
<tr><td colspan="2">행사용 가로기</td></tr>
</table>